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용기



많은 사람들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또 지금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고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VIX 지수라는 게 있다. 향후 30일간 주가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이 크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고통의 본질

그간 유가만 하락하면 주가가 반격점을 찍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주 말 국제유가가 이를 새 배틀 당 10달러 이상 폭락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540선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월 미국 투자은행 베어 스텐스가 파산위기에 직면했던 때였다. 당시 VIX 지수는 32.24였다. 지수는 올 5월 16.3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줄곧 상승하고 있다.

유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위기의 터널 한 가운데에 머물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다. 미국이 상반기에 1~1.16% 성장하여 지난 4월에 전망했던 0.3~1.2%를 넘었다고 좋아하는 것에 비해 본다면 한국경제는 여전히 고성장하고 있다.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원유의 가격적인 해외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5.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지 세계경제의 어려움, 혹은 저성장 탓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워낙 열악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주택과 사교육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외국계 투자가본이나 '강부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수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당·정·청 '균형발전 추진' 실천이 문제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가 최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왔다.

문제는 당·정·청이 국토균형발전 합의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점이다.

은행권, '돈 가뭄' 지역기업 특별 배려해야

광주·전남 기업들이 극심한 '돈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 당국의 대출관리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대출 억제제는 전방위적이다. 주택 미분양 확산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지점장의 전권권을 축소하는 등 대출심사를 엄격히 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억제 움직임은 뚜렷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집계 결과, 지난 4월 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증가액은 1천960억원에 그쳤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본성에 가깝다. 인류사의 수많은 전쟁은 대부분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구의 산물이었다. 전리품 중 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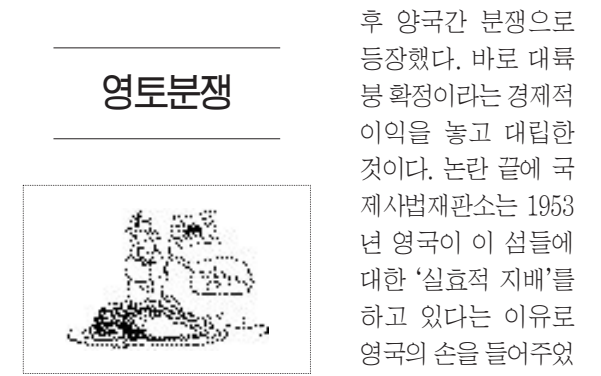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토분쟁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일본은 쿠릴열도(북방 4개 섬)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러시아·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공 윌리엄1세는 1066년 영국을 정복하고 노르망왕조를 세웠다.

無等鼓

영토분쟁은 국가의 본성에 가깝다. 인류사의 수많은 전쟁은 대부분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구의 산물이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집요하고 간교하다. 러일전쟁과 식민시대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둔갑시켰던 만행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공 윌리엄1세는 1066년 영국을 정복하고 노르망왕조를 세웠다.

법조 칼럼

이금규



올해 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27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하고 잔인한 범행에 대한 충격은 무더기 피고인의 가엾은 처지와 상대가 부각돼 병렬한 이성보다는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는 감성에 치우친 재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기원하며

사건의 요지는 20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생후 18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딸을 죽여 살해한 사건이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도 '감정재판' '졸속재판'이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원리'가 법원과 검찰, 또는 법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피상적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바른길,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촛불집회가 연이어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만 이것은 그야말로 기대일 뿐이다. 이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확실한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이 중요하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음식점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단속의 규격은 물론 글자 크기와 색깔, 설치장소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급하다.

기고

김광식



기름값이 연일 치솟자 이에 놀란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는 무이자에 대폭 할인인 기본이고, 무료로 연료 쿠폰까지 내걸고 있다.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인접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및 서브프라임 금융사태 여파로 집주인들이 은행 융자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경계에 이르자 이에 집을 버리고 야반 도주해 자그만치 빈집이 7천여 채에 달한다고 한다.

유가 급등, 지금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장사가 안돼 문 닫은 매장 수가 600여 개에 달한다고 보도됐다. 가스 판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자 한밤중에 호스를 이용해 자동차에서 가스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성행하고 있다.

신문품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올해 채소 종자의 판매가 예년에 비해 21%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지방세수가 줄어들자 급기야 이웃 버지니아 주정부는 교통벌칙금을 상식선을 넘게 대폭 인상했다.

근대 이곳 사람들은 생활수준을 종전보다 한 단계 낮춰 살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 짜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절약도 모자라 맞춰놓고 살아가는 것 같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되레 비정규직 양산

비정규직 근로자다. 2년 전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다.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으로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의 회피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만 서러운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너무 차별이 심하고 저임금과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하점투성이 비정규직법을 하루빨리 손봐주기 바란다.